

勢대결장된 합동연설회
정책대결 대신 인신공격
후보들 고소·고발 난무

‘진흙탕 경선’

광주시장 등 민주 후보 17곳 이번주 결정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1주일을 앞두고 ‘조작동원’이라는 구태가 반복돼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예상했던 시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광주의 미래를 견인할 정책대결보다는 고소고발과 인신공격 등이 난무해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장 후보 합동연설회는 각 후보 진영에서 동원한 지지자들의 ‘세 대결’ 양상으로 치러졌다. 지지하는 후보가 나타나면 일제히 이름을 연호하며 세를 과시하는가 하면 지지 후보의 연설이 끝나면 바로 자리를 뜨는 구태의연한 조작동원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당원은 “새롭게 광주시를 이끌어 나갈 후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왔는데 세 대결에만 열을 올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밤 열린 방송토론회도 마찬가지.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그동안 상대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성숙한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후보들은 상대방의 확인되지 않은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등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문에 치중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복지 분야 등에서의 각 후보의 정책 공약도

구체적인 로드 맵과 소요 예산 등을 제시하지 않아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 후보 진영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물론, 인신공격성 투머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우선 모 신문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실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 이응섭 후보 측은 정동채, 강운태 후보 측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정동채 후보는 지난달 3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강운태, 이응섭 의원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여기에 모 후보 측에서는 상대 후보 진영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여론조사에 배심원 평가를 섞는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광주시장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정책대결보다는 여론조사나 경선방식 등을 놓고 후보끼리 혈투는 최악의 경선전이 되고 있다”며 “어떻게 광주를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6일 강진·해남·고흥군수 후보 경선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광주·전남 17곳의 자치단체장 후보를 뽑는다. 7일 곡성·장흥·진도·신안군수, 8일 화순·영암·구례 군수, 9일 완도·담양·함평군수 후보 경선이 잇따른다. 10일에는 광주시장 후보 선출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있고, 목포·순천시장 후보 경선도 치러진다.

하지만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은 최고위원회 의결과정에서 1주일 정도 순연될 수 있다고 전남도당 관계자는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화사한 벚꽃길

4월의 첫 휴일인 4일 시민들이 광주시 서구 상록회관 벚꽃길을 거닐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부터 한 주일 동안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위기의 지역건설업

빚 줄도산 공포 확산

신용 A등급도 무너지다니...

광주 증권사 3년새 66곳 문닫아 이달 신용평가 앞두고 태풍전야

광주·전남 경제의 핵심 동력인 건설업이 무너지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시작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저신용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혹은 자금회수가 이뤄지면 추가 법정관리나 부도가 이어질 수 있다. 그야말로 태풍전야다.

이미 지난 2일 광주에서는 S건설이 부도처리 됐다. 앞서 S종합건설(3월31일)과 S건설(3월22일), D건설(3월17일), J종합건설(2월23일), D토건(2월2일) 등 소규모 지역 건설사 10여곳의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위기는 업체 수와 실적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전남도회는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236곳

로 뿔치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시작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저신용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혹은 자금회수가 이뤄지면 추가 법정관리나 부도가 이어질 수 있다. 그야말로 태풍전야다.

이달 신용평가를 앞두고 태풍전야로 뿔치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시작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저신용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혹은 자금회수가 이뤄지면 추가 법정관리나 부도가 이어질 수 있다. 그야말로 태풍전야다.

에 달하던 광주지역 종합건설업체는 2007년 211곳, 2008·2009년 187곳, 올해 170곳으로 66개 업체가 줄었다. 4년 사이에 광주 건설업체 4곳 중 1곳(27.9%)이 문을 닫은 것으로 전국 평균(7.4%)의 4배에 육박했다.

영산강 사업 등 대형 공공물량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전남 건설업체 수주 실적은 모두 8조6천815억원으로 전년 9조3천83억원보다 6천268억원(6.7%)이나 감소했다. 광주도 무실적 8곳 등 30억원 미만 수주 업체가 전체 회원사의 절반에 가까운 48%(44개사)에 이르렀다. 광주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40곳도 실적이 전혀 없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며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 없이 은행권의 건설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제2, 제3의 남양건설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천안함 수색 중단... 인양작업 돌입

남기훈 상사 시신 평택 2함대 안치

군은 4일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의 인양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전날 오후 11시부로 수색·구조작업을 중단했다”며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천안함을 조기에 인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인양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천안함의 함미와 함수 부분을 동시에 인양하는 5단계 인양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착수했다. 인양작업에는 삼호 I&D 소속 해상크레인 ‘삼아 2200호’와 해양개발공사 소속의 바지선 2척

과 120t급 크레인 2척, 유성수중개발 소속 바지선 1척과 120t급 크레인 1척 등이 동원됐다.

군은 전남 함미 쪽 원상사식당으로 추정된 절단면에 걸려 있던 실종자 고(故) 남기훈(36) 상사의 시신을 수습한 데 이어 함미 수색 구조작업을 펼 계획이었으나 실종자 가족들의 중단 요청으로 작업을 중지했다. 남 상사의 시신은 4일 목도함에서 헬기로 평택 2함대로 옮겨져 안치됐다.

지난 2일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을 펼치고 귀향하던 중 서해 대청도 근해에서 실종된 금양98호 수색작업은 이틀이 지난 4일까지도 별다른 진

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종선원 9명 가운데 3일 김종평(55)씨의 시신이 사고해상 주변에서 발견됐고, 인도네시아인 탐방 누르카호(35)씨의 시신은 사고해상 남동쪽 11마일(20km) 해역에서 발견됐지만, 나머지 실종자 7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금양 98호(99t)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군이 선사 등과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실종선원 구조작업이 뒤늦게 이뤄져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군이 무사히 귀향중이던 금양 97호 선장을 금양 98호 선장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조난신호를 접수한 지 1시간여가 지나서야 구조에 나서으로써 초기대응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 ~ 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뮬디온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지)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Energize your Mind & Body
(Physiological Outdoor Fitness Facility)
생활체육의 새로운 문화...
(주)케이엘에스가 열어드립니다.
www.kls.or.kr